

# 제11대 도의회 의정 마무리

4년간 38회 507회 집회  
총 1283건 의안 처리  
도정 질문은 1126건

일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4년간 총 38차례(정례회 8, 임시회 30) 507일 동안의 회기를 통해 총 128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10회에 걸쳐 연인원 91명의 의원이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1,126건의 질문을 하며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현안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11대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도민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서는가 하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37에 걸친 공공기관 유지지원 특별위원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며 도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 홍수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문화건설안전 위원회를 비롯한 도의회가 선제적인 홍수피해 원인 규명으로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등 주민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찬욱 의장은 "지난 4년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여기에는 도민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제12대 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도 도민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도민을 위한 더 나은 전북도를 만드는 일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4일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읍 시정구호 '시민 중심, 으뜸 정읍'

민선8기 정읍시장직 인수위 '시민 중심 시정가치 내용 함축'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민선 8기 정읍시 시정구호로 '시민 중심, 으뜸 정읍(Only citizen, The best Jeongeup)'이 선정되었다.  
민선 8기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시민 공모가 제안한 구호를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김모씨의 '시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정읍'이 장려상에는 '행복한 변화, 시민중심 정읍'이 선정되었다. 3건의 선정된 구호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시민 중심, 으뜸 정읍'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 구현"의 뜻을 담고 있다고 제안자인 김모씨는 설명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시청 홈페이지와 SNS,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와 함께 진행된 시정구호 공모에는 모두 30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인수가가 1차로 18건을 선정한 데 이어 23일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3건으로 결정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군산-제주 항공편 증편해야"

조동용 도의원, 정부에 촉구

최근 군산-제주 항공편이 일 4회에서 일 2회로 줄어들 것이 예정되면서 전북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증편을 촉구 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과 함께 항공편의 경영정 상황이 어려워졌음에도 제주공항 측이 슬롯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군산공항 노선 등에 배정되었던 임시슬롯을 회 수함에 따라 현행 제주항공 및 진여가 운항 중이었던 군산-제주노선이 일 4회에서 일 2회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39번)을 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항공사업법 제18조에는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

박용근 전북도 의회 의원(더불어 민주당, 장수)이 24일 지방체육회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들어, 체육회가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매해 지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조직의 인사·운영 등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방체육회장이 선거에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것은 경쟁하는 후보자들과 비교해 매우 불공정하고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체육회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53조 1항 9호를 살펴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체육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 면담



남원시장직 인수위는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민선 8기 5개 시정 중점과제 지원과 2023년 국가예산 증점 확보사업에 대한 예산변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당선인은 △미래 신성장산업·드론·항공 산업단지 조성 △농생명 바이오산업 거점도시 조성 △요전 시민공원 조성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효산본도 정상화 등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과 IX 드론관제센터,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및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등 국책사업 유치, 전라북도

승인사항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 요전시민공원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농생명바이오산업 거점도시 조성(6차산업)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당선인 핵심공약사업인 그린바이오 허브 중심 K-농생명 산업과 연계 도 정 중점과제에 포함되도록 해 줄 것과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 10건의 2023년 국가예산 증점 확보사업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민선 8기에는 전라북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국가예산 확보 및 국책사업 유치를 최선으로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 제9대 임실군의회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임실군의회가 지난 24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9대 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의원 및 직원 간 상경례를 시작으로 의회 기본현황 안내, 2022년 하반기 의회 운영 계획,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으며,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둘러봤다.

자리를 함께한 당선의원들은 "제9대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년 임기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9대 임실군의회는 내달 7일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